

델파이 조사를 통한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과정 교육내용 연구

윤정훈 · 조위수*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검토
 - 2.1. 다문화상담의 특징
 - 2.2. 다문화 동료상담자 활용 실태
 - 2.3. 다문화 상담자 자격제도 현황과 양성과정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 3.2. 연구 절차
4. 연구 결과
 - 4.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4.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4.3.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전문 동료상담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여 향후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국내 체류인을 활용한 다문화상담 전문 인력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에서의 다문화 상담자 양성과

* 제1저자: 윤정훈, 교신저자: 조위수

정에 관한 검토 및 다문화상담 선행연구, 21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이원화된 다문화동료 상담 인력 양성 교육과정안을 제안하였다. 다문화동료상담자 양성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다소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의 이주민들을 상담 보조 인력이나 통역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문 상담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상담, 다문화 상담자, 동료상담, 상담자 양성과정, 델파이조사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로,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전소희 · 김은서, 2023). 2012년 144만 5천 명이던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23년에는 257만 5천 명으로 10년 사이에 56.1%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 전체 인구 대비 2.84%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 비율이 2023년에는 4.89%로 증가하였다(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4; 2024).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주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고방식의 차이, 차별 경험 속에서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적신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홍월, 2017; 구차순, 2007; 노해정 · 박혜영, 2019; 이현진, 2022). 따라서 이들이 건강하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 언어 지원을 넘어, 심리 · 정서적 지원을 포괄하는 다문화상담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상담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혹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조력자의 관계에 함께 있는 것(Sue et al., 2022)

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주민, 유학생 등의 안정적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 및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 내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이중언어강사, 다문화 강사, 다문화 상담사를 활용하여 다문화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화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김현아·이자영, 2013; 이영란, 2021).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중언어강사, 다문화 강사 등은 다문화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거나 상담경력이 많지 않고, 일반 상담자들은 상담을 전공했지만 다문화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양미진 외, 2012; 이영란, 2021; 황수경·김은영, 2023; 황미경, 2012)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한국인 다문화상담 인력은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의 한계, 문화차이로 인한 장벽, 개입범위에 대한 혼란 등을 경험한다(위주원·최하나, 2015). 이를 타개하기 위해 타문화 이해와 수용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수련을 받는 등 상담자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다문화 상담사 자격의 법제화 제안(남궁정, 2021), 다문화 상담자 역량모델 개발(이영란, 2021), 다문화 상담자 교육과정 개발(강기정, 2012; 김현아·이자영, 2013; 김은하 외, 2019; 최연실·조은숙, 2017) 등 다문화 상담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계 및 기관 차원의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다문화상담자의 역할을 한국인 상담자로 국한하지 않고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담자로 활용하려는 탐색적 시도도 있다(정지원·김하나, 2022). 동료 상담이란 동질적인 언어나 문화적 배경, 생활양식을 가진 동료와 주고받는 도움 활동을 의미한다(이상희 외, 2000). 동료상담은 비슷한 환경과 처지를 경험한 선험자가 내담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양미진 외, 2009). 그러므로 상담 활동의 효과 측면에서도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 효율적일 뿐 아니라, 훈련받은 동료상담사 자신 또한 개인적 성장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내담자, 상담자 모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한 다문화 동료 상담

은 앞서 살펴본 다문화상담 인력 부족이라는 난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 다문화 동료상담 관련 연구는, 미국 소수민족 출신을 동료상담사 및 상담전문가로 양성시킨 연구(Stokes & Gina, 1988), 중국 이민 청소년 대상 동료 이민자 멘토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과의 영향을 다룬 연구(Christine et al., 2007) 등이 진행되어왔다. 국내 다문화 동료상담 관련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와 자국어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의 필요성(주은선 외, 2012),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모국어상담 지원 서비스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현경자, 2016), 북한 이탈주민에게 역할 모델 제공 및 초기 라포르 형성 촉진자로서 동료상담자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영경 · 김현아, 2009).

‘다문화 동료상담자’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나, 민간단체인 MPCO(Multiculture Peer Cooperation: 다문화동료상담교육센터)가 2020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동료상담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이현숙, 2021), 지역 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다문화상담자 양성과정’ 등이 개설되면서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상담 교육을 받아, 같은 배경의 다문화인을 돕는 동료상담 측면에 중점을 두어 ‘다문화 동료상담자’라는 민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상담 인력 확충을 위해 국내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 다문화 배경 국내 체류자를 다문화 동료상담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첫 단계로,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수준 등을 제안하고자, 다문화 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2.1. 다문화상담의 특징

다문화상담은 문화, 가치관, 윤리, 이념 등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이영란, 2021). 다문화상담에서는 특정 문화집단의 인종, 성, 성적 지향 등에 관련된 세계관을 고려하고, 문화적 유능성 요소에 초점을 둔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Sue et al., 2022). 다문화상담자는 내담자 성장 배경의 문화적 특징과 상담자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상담 작업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Pedersen, Crether, & Carlson, 2008). 이를 위해 다문화 상담자는 다문화적 태도, 기술, 지식, 신념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상담에서 상담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담기법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이나 상담 효과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임은미 외 2018),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개입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Sue et al., 2022).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 다문화 상담자들은 문화적 차이 및 개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상담자의 편견과 고정관념, 특권에 대해 인식하여(김은하 외, 2019)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은 한국인 다문화 상담자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쉽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등(김현아·이자영, 2013) 한국인 상담자가 진행하는 다문화상담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인 상담자로만 수행되던 국내 다문화 상담자 역할을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국내 다문화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보려는 시도는 의미있다.

2.2. 다문화 동료상담자 활용 실태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동료상담자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결

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여성상담원,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통역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학생 또래상담자 정도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다문화 동료상담가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다문화 동료상담가 양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주여성상담원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일정한 선발 과정과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 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모국어로 상담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주여성상담원의 주 활동처는 다문화가족센터와 다누리콜센터이다. 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통·번역사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누리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상담원은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둔다. 이주여성상담원은 이주민 생활을 먼저 경험한 상담자로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고민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내담자에게 동일한 언어를 쓰며 적응상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주여성상담원은 내담자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 일반 개인 심리상담을 기본으로 이혼 및 체류 관련 법률상담, 정보안내, 가정폭력 위기 상담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주은선 외 2012). 이주여성상담원은 활동 초기에는 한국어 실력, 상담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활동 경험이 많아질수록 전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슈퍼비전,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인 다문화 상담자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김현아·이자영, 2013).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중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했거나 체계적으로 상담 교육을 받은 이들이 드물어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담통역지원사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 통역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이다. 상담통역지원사는 심

리상담 통역을 지원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병·의원 진료 또는 지역기관 연계 시 동행 및 통·번역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또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 시 필요한 서류(동의서, 면접지 등)의 번역을 지원하기도 한다. 선발요건은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학과 등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어가 가능한 해당 국가 출신자를 선발한다. 외국 국적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국내 체류 기간 2년 이상인자를 조건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통·번역 활동 경험이 있거나 활동을 하는 자, 내담자와 동일한 문화권 출신이거나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심리상담 및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 현장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자를 우대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어 서비스 수혜자가 소수라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자(Peer Counselor)는 서로 동년이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아 다른 개인 또는 동료에게 상담,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채연희·이현립, 2003). 초중고와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을 또래 상담자로 양성해 왔으나, 최근 유학생을 또래상담자로 활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양영하·최명숙, 2021). S대 유학생 상담센터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또래 상담자'로 선발하여 학생들 간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였다. 또래상담자는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유학생을 선발하여 진행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 부진 문제나 유학 생활 부적응을 개선하는 측면뿐 아니라 유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학생의 심리적인 건강 악화와 적응실패는 유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진, 2022).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유학생 전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유학생 또래상담자 양성은 하나의 대안적 시도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다문화 상담가로 활용하는 시도는 현장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문화 동료상담자의

활용은 내담자의 자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므로, 이들의 상담 전문성을 담보할 방안, 즉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2.3. 다문화 상담자 자격제도 현황과 양성과정

민간에서의 다문화 상담자 양성과정은 명확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된다. 다문화 상담자 관련 민간자격증을 살펴보면 2024년 1월 기준 총 42건이 등록되어 있다(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24).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다문화상담 관련 자격증은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다문화이해상담전문가’, ‘다문화가족상담사’ 등 그 명칭이 다양하며, 양성과정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증 발부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과정별로 각기 다른 실정이다.

다문화상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2021년 9월 기준 서울 14곳, 6대 광역시 11곳, 경기도 10곳, 강원도 2곳, 충청도 1곳, 전라도 1곳, 경상도 9곳, 제주도 1곳 등 총 52곳이다. 다문화 심리상담학과,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한국어학과 등에서 다문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다문화 상담자를 육성할 수 있는 학위과정과 양성과정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있다(남금정, 2021). 기존 다문화상담 관련 연구 또한 사례를 살펴거나 상담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의 중요성에 관해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모색이나 다문화 상담자 자격제도에 관한 제안에 관한 연구는 소략하다. 다문화 상담자 역량모델 개발(이영란, 2021), 다문화 상담자 교육과정 개발(강기정, 2012; 김현아·이자영, 2013; 김은하 외 2019; 최연실·조은숙, 2017) 등 다문화 상담자를 양성하고 상담역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 수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다문화 상담자를 양성하는 과정 또한 자격제도나 양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한 다문화 동료상담가 양성이라는 주제가 성급할 수 있겠으나, 다문화상담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인 상담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전문가와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자국어 상담이 가능한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상담자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검증을 위해 다문화 및 상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델파이 패널로 구성하였다.¹⁾ 먼저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각 참여자의 전공, 소속기관, 경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다문화 분야 10명, 상담 분야 11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전문가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정보(다문화 전문가)

참여자	경력
패널 1	학력: 한국어교육학 석사 / 자격: 한국어교원 2급 경력: 한국어교육 18년(공단, 다문화센터, 다문화 학급)
패널 2	학력: 한국어교육학 박사 / 자격: 한국어교원 1급 경력: 한국어교육 15년(어학당, 학부 등)

1)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전문가는 한국어·다문화교육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지자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분야 현장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상담전문가는 다문화상담 경험이 있으며, 상담관련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5년 이상의 상담 경험 및 상담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들이다.

참여자	경력
패널 3	학력: 한국어교육학 박사 수료 / 자격: 한국어교원 1급 경력: 한국어교육 13년(어학당, 학부, 다문화센터)
패널 4	학력: 학사 / 자격: 한국어교원 2급 경력: 한국어교육 9년(다문화센터)
패널 5	학력: 다문화교육학 박사 수료 / 자격: 한국어교원 1급 경력: 한국어교육 10년(어학당, 학부, 초중·다문화센터)
패널 6	학력: 한국어교육학 박사 / 자격: 한국어교원 1급 경력: 한국어교육 15년(어학당, 학부, 해외 대학, 다문화 학급)
패널 7	학력: 한국어교육학 박사 수료 / 자격: 한국어교원 1급 경력: 한국어교육 13년(어학당, 학부, 다문화 학급, 다문화센터)
패널 8	학력: 석사 수료 / 자격: 한국어교원 2급 경력: 한국어교육 12년(결혼이주민 한글 자원봉사)
패널 9	학력: 다문화교육학과 수료 / 자격: 사회복지 경력: 다문화가정 멘토링 및 부모 상담 2년, 대학 다문화 관련 행정 업무 1년, 대학 유학생지원 관련 행정 1년
패널 10	학력: 한국어교육학 박사, 상담 심리학 석사 자격: 한국어교원 1급, 다문화 전문가 2급 경력: 한국어교육 17년(어학당, 다문화 학급)

〈표 2〉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정보(상담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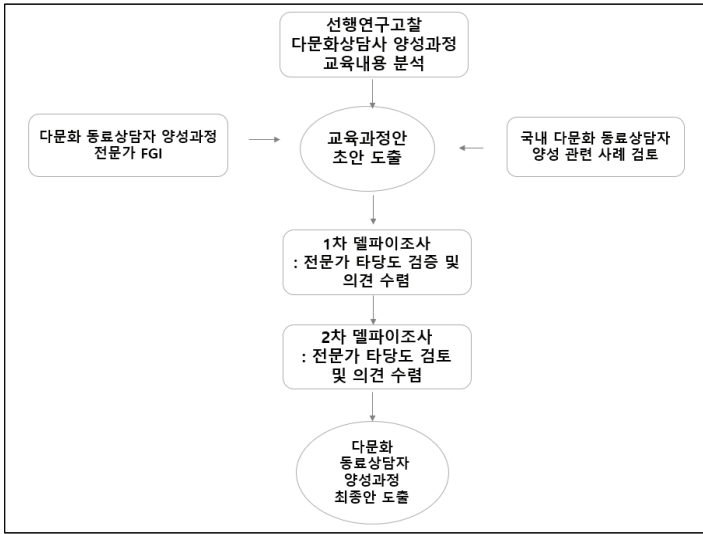
이름	경력
패널 11	학력: 교육학 박사(상담심리 전공) 자격: 전문상담사 1급, 가족상담사 1급 경력: 20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
패널 12	학위: 교육학 박사(상담심리 전공) 자격: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경력: 14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패널 13	학력: 교육학 박사(상담심리 전공) 수료 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부모교육코칭전문가 1급 등 경력: 19년(대학병원, 정신건강의원 임상심리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이름	경력
패널14	학위: 교육학 박사(상담심리전공) 자격: 한국상담학회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경력: 17년(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다문화가족 및 장병 상담 등)
패널15	학력: 교육학 박사(상담심리전공) 자격: 전문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경력: 9년(대학 학생상담센터 유학생 상담 전문 객원 상담원 등)
패널16	학위: 교육학 박사(상담심리 전공) 자격: 전문상담사 1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등 경력: 15년(다문화장병 상담, 성고충전문상담관, 성폭력 예방 강사 등)
패널17	학위: 심리학 석사(임상심리 전공) 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경력: 8년(대학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원)
패널18	학위: 교육학 박사(상담심리 전공) 자격: 부모교육코칭전문가 1급 경력: 5년(대학상담센터 중국 유학생 전담 객원상담원)
패널19	학위: 교육학 석사(상담심리 전공), 박사 수료(여성학) 자격: 상담심리사 2급 경력: 25년(성폭력가정폭력 지원상담, 대학생상담센터 연구원 등)
패널20	학위: 교육학 석사(상담심리전공) 자격: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경력: 6년(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전문상담사, 가족센터 위촉 상담원 등)
패널21	학위 대학원 석사 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등 경력: 24년(다문화장병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제반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문화 동료상담사의 역할과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고, 국내 민간기관 등에서 양성하는 다문화 상담자 교육과정 분석 등을 토대로 다문화 동료 상담자 교육과정 영역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렇게 도출된 초안에 대해 총 두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문화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도출과정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델파이 조사 참여자 중 다문화 전공 교수, 다문화 현장 전문가, 상담 현장 전문가, 상담 관련 전공 교수 각 1인이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구성 시 필요과목 및 과목 교육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현장 적용성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참여도, 민간자격 발급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다문화상담 관련 42개의 민간자격 과정 평균 교육 시간을 참고하여 <표 3>과 같이 총 24시간, 11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표 3〉 교육과정 초안

과목명	이수시간
다문화상담의 이해	이론 (2시간)
다문화상담 기법과 실제	이론, 실습 (4시간)
다문화 내담자 문제유형별 개입 방법	이론, 실습 (2시간)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	이론, 실습 (2시간)
다문화상담 위기 개입	이론, 실습 (2시간)
다문화상담 윤리	이론, 실습 (2시간)
집단상담	이론, 실습 (2시간)
다문화상담 사례관리	실습 (2시간)
다문화 법률상담 사례	이론, 실습 (2시간)
다문화사회와 인권	이론 (2시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법	이론 (2시간)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교육과정 초안을 바탕으로 두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문항은 교육과정 초안의 각 과목 및 교육목표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적합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영역에 관한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식 문항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배부하고, 전문가들이 내용을 작성한 후 연구자에게 송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영역 및 교과목 이수시간을 수정하였으며 교육과정 초안의 일부 교과목을 삭제 및 변경, 추가하였다. 이후 재구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전체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산출 공식을 통해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과 합의도, 수렴도 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CVR은 특정 문항에 '매우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다'로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1.0의 범위에 속한다.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1 : 전체 참여자 수

Ne : '적합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수

CVR이 양수인 경우는 '적합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수가 절반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최소 기준값 이상일 경우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yre & Scally(2014)가 계산한 이항확률에 의한 CVR의 임계값에 따라, .50을 최소 기준값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합의도와 수렴도는 델파이 조사의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측정치로,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6).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text{ 합의도} = 1 - \frac{Q_3 - Q_1}{Md}$$

Q1, Q3 : 제1사분위 및 제3사분위 계수

(전체 사례수의 누적 값 중 25%, 75%)

Md : 중앙값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렴도가 0에 가까울수록, 또 합의도가 1에 가까울수록 평정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2차의 델파이 조사를 거쳐 다문화동료 상담자 양성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4장에서는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4.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다문화상담의 이해, 다문화상담 기법과 실제, 다문화 내담자 문제유형별 개입 방법, 다문화상담 사례관리, 다문화윤리’ 과목은 평균 4.85~5점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1과 0으로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CVR은 모든 과목이 1.00으로 타당하게 판정되었다. 한편 ‘다문화상담 위기 개입, 집단상담, 다문화 법률상담 사례, 다문화사회와 인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법’ 과목은 평균 4.45~4.7의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CVR이 0.80~0.90으로 최소 기준값 이상으로 타당하였다. 합의도는 0.80, 수렴도는 0.50으로 의견 수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상담사 양성 교육과정 과목 평가

과목명(이수 시간)	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다문화상담의 이해 (4)	5.00	0	1	0	1
다문화상담 기법과 실제 (2)	5.00	0	1	0	1
다문화 내담자 문제유형별 개입 방법 (8)	4.85	0.36	1	0	1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 (6)	4.85	0.36	1	0	1
다문화상담 위기 개입 (8)	4.65	0.65	0.80	0.50	0.80
다문화상담 윤리 (4)	4.70	0.56	0.90	0	1
집단상담 (2)	4.45	0.67	0.80	0.50	0.80
다문화상담 사례관리 (2)	4.85	0.36	1	0	1
다문화 법률상담 사례 (4)	4.55	0.50	1	0.50	0.80
다문화사회와 인권 (2)	4.60	0.73	0.90	0.50	0.80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법 (4)	4.65	0.48	0.90	0.50	0.80

각 과목에 대한 의견, 과목 삭제 및 추가에 대한 의견, 이수 시간에 대한 주관식 의견은 실습과목의 내실화, 상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시간의 확보 및 이수 시간 확대, 다문화 내담자 문제유형별 개입 방법에서 유형별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목 추가 등이 확인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수 과목 영역을 <다문화 영역>, <다문화상담 영역>, <다문화 법률 및 정책 영역>으로 분류하고, 교육과정도 단일과정에서 기초+심화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다. 이수 시간도 단일과정 24시간에서, 기초과정 40시간, 심화과정 35시간 총 75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다문화 배경을 지닌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개별적 접근에 관한 교육내용 추가에 대한 의견에 따라, 기초과정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이해', 심화과정 '다문화 대상별 상담 실습의 실제' 과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4.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기초 과목에서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상담 이해, 다문화상담 기법과 실제,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이해, 실습'이 평균 4.58~4.95, CVR 0.79~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1과 0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사회와 인권, 다문화 내담자 문제유형별 개입방법, 다문화 상담 위기 개입, 다문화 관련 정책과 법, 다문화 법률상담 사례 I' 과목 또한 평균 4.47~4.63, CVR 0.68~0.89로 비교적 높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합의도 0.9, 수렴도 0.5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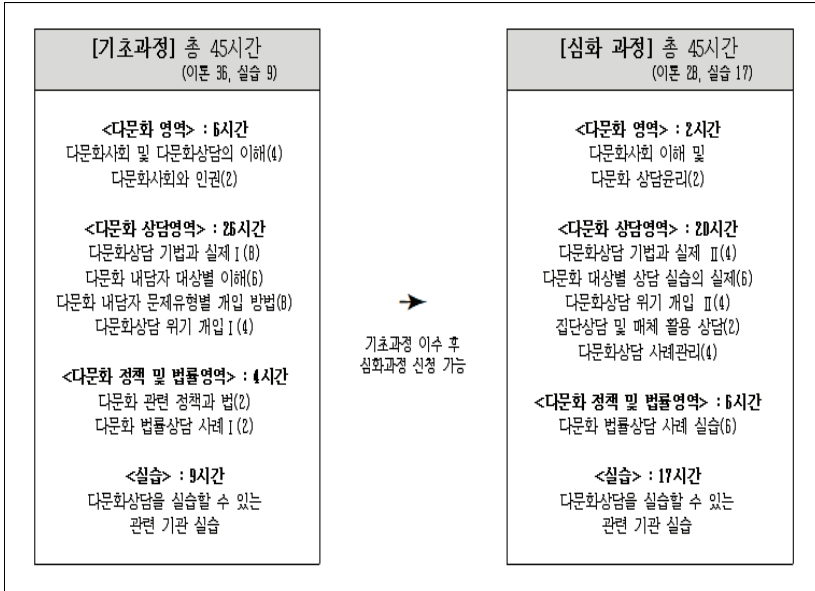
심화 과목에서는 '다문화 상담기법과 실제 II, 다문화 대상별 상담 실습의 실제, 실습'이 평균 4.79~4.89, CVR 0.79~0.89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1과 0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상담윤리, 다문화상담 위기개입 II, 집단상담 및 매체 활용, 다문화상담 사례관리, 다문화 법률상담 및 사례, 실습II' 과목은 평균 4.21~

4.63, CVR 0.68~0.79, 합의도 0.9, 수렴도 0.5로 비교적 높은 타당도로 확인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2차 델파이 결과

과목명 (이수 시간)		평균	CVR	표준 편차	수렴도	합의도
기 초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상담의 이해 (4)	4.74	0.89	0.55	0	1
	다문화사회와 인권 (2)	4.47	0.68	0.75	0.5	0.9
	다문화상담 기법과 실제 I (8)	4.74	0.89	0.71	0	1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이해 (6)	4.58	0.79	0.94	0	1
	다문화 내담자 문제유형별 개입 방법 (8)	4.63	0.89	0.74	0.5	0.9
	다문화상담 위기 개입 (4)	4.58	0.89	0.59	0.5	0.9
	다문화 관련 정책과 법 (2)	4.63	1.00	0.48	0.5	0.9
	다문화 법률상담 사례 I (2)	4.47	0.79	0.68	0.5	0.9
	실습 (4)	4.95	1.00	0.22	0	1
심 화	다문화사회 이해 및 다문화상담윤리 (2)	4.63	0.89	0.58	0.5	0.9
	다문화상담 기법과 실제 II (4)	4.89	0.89	0.45	0	1
	다문화 대상별 상담 실습의 실제 (6)	4.79	0.79	0.61	0	1
	다문화상담 위기 개입 II (4)	4.63	0.79	0.67	0.5	0.9
	집단상담 및 매체 활용 상담 (2)	4.21	0.68	1.10	0.5	0.9
	다문화상담 사례관리 (4)	4.53	0.89	0.60	0.5	0.9
	다문화 법률상담 사례 실습 II (6)	4.42	0.89	0.59	0.5	0.9
	실습 (7)	4.79	0.89	0.52	0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든 과목이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에서 적절함으로 평가되었으나 주관식 의견에서 실습시간의 보충, 기초와 심화 과목 목표의 구체화, 자격 기준 및 수료기준의 명시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동료상담 양성과정의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최종(안)

4.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및 다문화 전문가 10인, 상담전문가 11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배경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다문화 동료상담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상담과 다문화 동료상담 활용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문화 동료 상담자 활용에의 긍정적 측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 인력으로서의 양성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다문화 동료상담 관련 연구는 초기에 머물고 있어,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다문화 상담자 교육을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문화 상담자 양성 또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없이, 교육 기관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거나, 효과적인 상담 개입에 대한 이론과 실습시간이 부족한 것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현실적 수준에서 가능한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과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문가 FGI와 두 차례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이원화된 총 90시간, 17개 과목의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과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훈련 수준 및 자격 기준, 자격증 발부 기준, 운영 및 현장과의 교육 연계성을 제시하여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다소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의 이주민들을 더이상 상담 보조 인력이나 통역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문 상담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다문화 동료상담은 필요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다문화상담 전문인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논의할 만한 다수의 과제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준전문가 수준의 다문화동료상담자 자격기준을 이주여성상담원 선발기준인 토픽 4급 이상, 체류기간 2년 이상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 재학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수료기준은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100시간)의 수료기준인 90%를 기준하고, 이론만큼이나 실제 상담에의 적용 부분이 중요한 만큼 실습 과정 역시 90% 이상 참석하였을 때 수료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자격 신청기준 및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 동료상담자 양성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교육내용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문화상담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현장에서 다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적인 측면도 강하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문화 동료상담자 교육과정 내에서도 총 26시간의 실습시간이 설정되어 있다. 교육과정이 현장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경험이 충분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강의 방법 또한 이론과 실습이 과목마다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실습수업을 활용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자로부터 상담수퍼비전, 사례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다문화 동료상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므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관계자 FGI 및 심층 면담을 통해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의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기정(201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153-168쪽.
- 고홍월(2017).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교과교육학회지〉 29(4), 131-152쪽.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59쪽.
- 김영경 · 김현아(2009).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81-1009쪽.
- 김은하 · 신윤정 · 이지연(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상담 교과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쪽.
- 김현아 · 이자영(2013). 한국인 다문화 상담자들의 경계와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09-925쪽.
- 남금정(2021). 다문화상담사 국가자격증 제도화 방안, 〈인문사회 21〉 12(6), 867-881쪽.
- 노해정 · 박혜영(2019). 집단음악활동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30, 63-83쪽.
- 민간자격정보서비스(2024). <https://www.pqi.or.kr>.(검색일: 2024.02.01)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4). 2013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23). 2022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양미진 · 이동훈 · 고홍월 · 김영하 · 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 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쪽.
- 양영하 · 최명숙(2021). 코로나 19 상황의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방향: 2020 학년도 S 대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475-486쪽.
- 위주원 · 최한나(2015). 한국사회 다문화 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0, 87-130쪽.
- 이상희 · 이지은 · 노성택(2000). 중 · 고등학교에서의 포레상담 효과검증연구, <상담학연구> 1(1), 75-92쪽.
- 이영란(2021). 다문화 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다문화사회연구> 14(2), 77-122쪽.
- 이현숙(2021.03.04),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자립에 큰 도움, 한겨레신문, <https://buly.kr/Alikg4H> (검색일: 2024.02.01)
- 이현진(2022). 외국인 유학생의 상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및 대학생활 적응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3), 59-72쪽.
- 임은미 · 강해정 · 구자경(2018).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의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5), 209-232쪽.
- 전소희 · 김은서(2023).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 이주민과의 직 · 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2), 179-206쪽.
- 정지원 · 김하나(2022). 다문화동료상담사로 활동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 21> 13(3), 1527-1542쪽.
- 주은선 · 조병주 · 이현정(201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함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45-76쪽.
- 채연희 · 이현림(2003). 포레상담 운영이 포레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1(1), 116-125쪽.
- 최연실 · 조은숙(2017). 다문화가족상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2), 181-209쪽.
- 현경자(2016).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다문화부부의 가족과정에 미치는 효과-경제압박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모형의 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81-109쪽.
- 황미경(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다문화 역량과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서울 · 경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2), 115-146쪽.
- 황수경 · 김은영(2023). 상담자가 경험한 다양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상담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1), 91-111쪽.
- Christine J., Yeh, A.M., Ching, Y.O., & S. S. Luthar.(2007), Development

- of a mentoring program for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cultural adjustment, *Adolescence*, 42(168):733-747.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Pedersen, P. B., Crethar, H. C., & Carlson, J. (2008). *Inclusive cultural empathy: Making relationships central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okes, D. R. & E. Gina (1988). Multicultural Peer Counsel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Rational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7(1): 1-55.
- Sue, D. W., Sue, D., Neville, H. A., & Smith, L. (2022).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필자 소개

성 명 윤정훈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D569호
전자우편 glasofk@bufs.ac.kr

성 명 조위수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D521호
전자우편 20206009@bufs.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Training Course for Multicultural Fellow Counselors through Delphi Survey

Yun, Jung-hun · Cho, Wi-s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curriculum to cultivate peer counselors specializing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fostering professional multicultural counseling personnel using domestic resid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the future. To this end, a review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he training course for multicultural counselor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a Delphi survey of 21 experts were conducted to propose a training course for fostering multicultural peer counselors divided into basic and advanced courses. Although there may be some limitations in the realization of fostering multicultural peer counselors,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in that it does not limit migra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to counseling assistants or interpretation support, but presents implications for discussion and follow-up research to cultivate them as professional counselors.

|Key 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multicultural counselors, peer counseling, professional training curriculum, delphi survey

투고일 2024. 06. 25 / 심사일 2024. 07. 17 / 게재확정일 2024. 07. 23